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14, 유대 메시아주의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14회기 유대 메시아니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지막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 세계의 무대를 실제로 설정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대 메시아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진 사건과 사상,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세기 중간기 말과 초기 로마 시대에 메시아니즘이 취한 다양한 형태. 그렇다면 우선 현재 존재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복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헤롯과 하스모니아 사람들 사이의 투쟁과 로마 감옥에서 계속해서 탈출하는 사람들 등의 모든 소란에 대해 알고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장군들이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땅에서 착유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꽤 오래 전에 세금 농업 시스템과 세금 농업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부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해 이 기간에 유대에서 세리들은 매우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언급되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금 징수 시스템을 대폭 개혁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과시킨 법률로 인해 세리들은 예전처럼 많은 뇌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갈취할 유인이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으로 인해, 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시대에도 세금 징수원들은 여전히 나쁜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우리가 흔히 세리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썩은 사람들, 매우 사악하고 끔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게 누구의 설교에 해당된다면 미안하지만, 사실은 매튜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보기에 사악하고 개탄할 만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금이 오르고 있었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복한 그리스 도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 주민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문앞에 도착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늘어나는 난민 인구에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살고 있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미 사람들은 여분의 돈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불행 수준이 이 정도였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은 국가적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혀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은 정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방인의 멍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자존심과 민족의식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습니까?
Hasmoneans에 대한 분노가있었습니다. Hasmoneans는 전통적으로 보유했던
자력이 없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물론 헤롯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왕국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이 그 시대와 그 시대에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이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 네 왕국의 환상을 읽을 때 왕국의 행렬에 대해 읽습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 8장에서는 그 왕국 중 하나가 그리스 왕국임을 알려 줍니다.
이런 것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이
그에게 다니엘서를 보여주며 "자, 보세요. 그것은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로마인의 도래에는 약간의 재해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국이
위대하고 끔찍하고 강력하고 모든 것을 발 아래 짓밟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로마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꽤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에서 그들은 이 작은 점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분쇄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분쇄라는 단어는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에 사용되었으며 라마스(ramas) 인데 , 이는 로마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된 존재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왕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넷째 나라는
인자가 올 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몸도 멸망되어 불사르게 내어주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가까이 두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말? 알잖아? 그러나 어쨌든, 시대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곧 출현할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먼저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전혀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일반 유대인들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으며 메시아 개념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와서 그들을 로마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다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전에서 약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나서 자리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메시아주의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성경적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메시아(Mashiah)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시아흐(Mashiach)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단순히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또는 번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마시아는 기본적으로 직분에 기름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관유를 지닌 제사장들은 마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불릴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나의 선지자들을 만지지 말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마시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름부음을 받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왕으로 지명할 때에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그들은 특별한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이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왕의 직분을 맡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문구는 구약성서처럼 메시아적 제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성서에서 메시아와 같은 것으로 불리는 여러 좋은 책의 여러 제목이 손상됩니다.

구약성서에는 메시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장차 올 구원자를 가리키는 기술적인 용어인 메시아라는 문구는 구약성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신구약 중간기에 이 다윗 왕의 칭호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초기 중간기 시대가 아닙니다. 메시아라는 문구가 장차 올 구원자를 가리키는 기술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신구약 중간기의 꽤 늦은 시점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적 희망의 기초입니다.

자, 머리에 관유를 쓴 왕으로서의 메시아에서 언젠가 오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개념의 근거는 11절부터 16절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다.

좋아요.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이르시되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를 이어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사람이다.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의 솔로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영원히는 히브리어로 펑키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번역하거나 이에 대해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은 영구적으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예상되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의 통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2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후에 우리가 그들을 꿈꿀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그릇 행하면 내가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나 내가 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당신의 왕좌는 영원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 왕국이 분열된 구약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북왕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세운 다양한 왕조가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는 당시 계승한 왕들이 모두 다윗의 가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노선을 영원히 유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랬나요? 왜냐하면 왕권을 빼앗긴 바벨론 포로라는 작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편에서 우리는 시편이나 애가에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읽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그의 통치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 많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읽기가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이루실 그 날을 고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왕국이 이 기간의 아주 초기에 분열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라는 두 나라로 분열된 후, 이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되찾을 새로운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이사야 9장, 이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가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멸시하게 하셨도다.

북왕국은 이것을 이스라엘이라 말하되 후일에 여호와께서 바다의 길과 요단 저편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세 행정구역이다. 그의 권위는 클 것이며, 다윗의 왕위와 그의 왕국에는 끝없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초기 희망은 왕국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도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국가를 다시 하나로 모을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이와 매우 유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얻으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하나로 모으고 민족 위에 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유다의 정복과 궁극적인 몰락은 적어도 즉시 이러한 희망을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목자, 그의 종 다윗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행했던 것과 같은 권위를 행사할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예레미야 23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의 시대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선지자들은 민족들을 재결합하고 유다에 영광과 의를 가져올 이 다윗 왕가의 도래를 여전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말기에도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사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사 그 날에 그들 중 가장 약한 자도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들의 선두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를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우리는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일부 본문에서는 다윗 왕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언약의 사자에 관해 읽습니다.

그러면 길을 예비하는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메시아를 위해서도, 다윗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백성에게 큰 환난의 날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때에 메시아가 와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대천사 미가엘이 일어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아마도 구약성서의 후반부 본문 중 하나인 이사야 59장은 주님께서 친히 공의를 행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놀라운 구절입니다. 정의가 뒤집어졌습니다.

의가 멀리서 있고 진실이 광장에 걸려 넘어지고 정직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이 부족합니다. 악에서 돌아서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개입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팔이 그를 승리하게 하였고, 그 자신의 의가 그를 불드셨느니라. 그는 흥배처럼 의를 입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이십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셨습니다. 그는 복수의 옷을 옷으로 입으시고 분노로 자신을 겹옷처럼 두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그의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며 해변들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서쪽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동쪽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바람에 몰려 급류 같이 오시며 시온에 임하여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구속자가 되실 것임이니라

허물에서 돌이키는 야곱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이사야 59장에 따르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의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주님 자신.

이제 우리가 신약중간기에 이르게 되면 실제로 초기 중간기의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스모니안 시대에 생산된 그 본문들에는 메시아 개념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다윗에게 한 약속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스몬 왕조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정말로 유다의 유일한 합법적인 왕이 다윗 가계의 왕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스몬 왕조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아, 그건 옛날 얘기야, 그건 옛날 얘기야'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왕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구약 중간기의 대부분에는 이 다윗 계통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경에는 다가오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한 후, 그리고 사실상 하스모니안 왕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이미 왕의 귀환, 진정한 왕의 귀환에 대한 갈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왕권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옛날 다윗처럼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부흥시킨다 해도 그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의롭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스모니안 시대 말기에 이미 '문제가 뭔지 아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이비드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메시아를 소망하십시오.

솔로몬의 시편은 18개의 유대 문헌을 모아 놓은 것으로, 아마도 로마가 도래한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에 할당된 날짜는 다양하며 이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은 흥미로운 본문이다. 그것은 꽤 오랫동안 분실된 텍스트 중 하나였지만,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에티오피아 교회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의 가호가 그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솔로몬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가장 초기의 사본 중 하나는 그것이 발견되었을 당시인 17세기의 것이었습니다. 인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 교부들 중 일부가 이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았지만 에티오피아인들이 그 내용의 다른 사본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편은 하스몬 왕조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시편 17편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나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당신 앞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후손에 관해 영원히 그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쫓아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던 것을 그들은 폭력으로 우리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자신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결코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소란스러운 오만함으로 다윗의 왕위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제하셨나이다. 우리 종족 외에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였나이다. 품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한 우리는 여기 같은 본문인 솔로몬의 시편에서 합법적인 다윗 왕조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 때에 주께서 아시는 다윗의 자손 그들의 왕을 그들 앞에 세우사 그로 주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어 불의한 통치자들을 쳐부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멸망에 이르게 한 이방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현명하고 의롭게 그분은 죄인들을 유업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는 도공의 향아리같이 죄인들의 교만을 멸하시리라.

여기 아마도 기원전 50년쯤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서기 1세기라고 말합니다. 누가 알아?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시대 직전 어느 시점에, 우리는 참된 다윗 왕의 도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이 본문을 듣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대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주제입니다.

그가 의로 인도할 거룩한 백성을 모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게 된 백성의 지파들을 재판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그의 멍에 아래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옛적과 같이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시편 본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다윗의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은 시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사해 두루마리, 즉 여러 두루마리에서도 이러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메시아는 사해 두루마리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있으며, 일부 두루마리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Q Florilegium.

4Q Florilegium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하는 텍스트 모음입니다. 그는 다윗의 지파이다. 글쎄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것에 관해 언급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시온을 다스리기 위해 율법 해석자와 함께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본문을 인용한 다음 우리에게 해석을 주는 본문 모음입니다. 이 경우 그들은 모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쟁 두루마리에는 회중의 왕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이며, 민족을 이끌고 열국을 정복할 사람은 바로 회중의 왕입니다. 이제 사해 두루마리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천둥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합법적으로 통치할 것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통치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곳에서 다시 주장되었습니다. 이 다윗 가문의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가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 것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의 힘은 무적입니다. 다윗의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를 최고의 세계 강국으로서의 정당한 위치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영감을 받아 등장한 수많은 군벌 인물들을 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이 시대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르 코크바 (Bar Kokhba)라는 이름의 반란 과 함께 서기 135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별의 아들을 의미하는 Bar Kokhba 라는 별명을 가진 Simeon Bar Kokhba . 그는 또한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큰 반역을 일으켰으며, 그는 당대에 오실 왕인 메시아로 환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된 왕이 와서 사람들을 독립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가서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메시아 왕이 그의 천둥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글쎄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것이 메시아 왕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사제의 생각이다. 레위의 언약.

우리는 십이사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방금 열두 족장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 언약에는 레위 지파에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의로운 제사장이 되어 모든 백성을 의로 인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중 일부는 또한 의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속죄함으로써 상황을 바로잡을 이 종말론적 제사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속죄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은 이 특별한 메시아 인물을 통해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글쎄요, 이것도 사실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통치는 확실히 이에 약간의 자극을 주었지만, 스가랴 6장은 이러한 사고 방식에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스가랴 6장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음, 특히 히브리어를 분류하기 위해 매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합시다.

내 느낌은 그것을 읽어 보면 아마도 약간 수정되었지만 특별히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스가랴 6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일의 중심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도 스가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6장에서는 스룹바벨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스룹바벨에게 부여되었던 그의 지위와 영예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은과 금을 가져다가 화려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자신만의 머리쓰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있는 곳에서 돌아나리라 하라

잠깐만요. 메시아적 제목이군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칭호가 아니라 다윗 왕의 칭호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어디가 헛갈리는지 보셨나요? 내가 왜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영광을 받고 자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좌에 앉은 제사장이 될 것이며, 두 직분 사이에 평화의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그랬을 것입니다. 말하기 어렵다. 두 명의 메시아, 즉 왕의 메시아와 제사장의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개념이 사해 두루마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에는 한 사람이 왕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텍스트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권력은 같지만 직위는 다르다. 그래서 공동체 통치에는 왕과 제사장이 함께 등장한다.

그들은 둘 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는 두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식사에서는 회중의 지도자인 왕보다 제사장이 더 영예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왕의 역할은 주로 유대인의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끌게 될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을 정복할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의 군주가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모임을 인도하고, 백성을 재판하며, 의로운 제사와 선행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에는 이러한 분업과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매우 인간적인 인물에 더해, 두 다윗의 메시아는 거의 모든 텍스트에서 거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됩니다.

메시아 사제는 인간으로 이해됩니다. 거의 모든 본문에는 인간 메시아가 나오지만, 다른 개념을 가진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초자연적인 메시아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 중 일부는 다니엘서, 즉 천사적 메시아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First Enoch와 11Q Melchizedek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에녹 1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에녹에서는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할 왕이 위대하고 강력한 천사로 매우 분명하게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1Q 멜기세덱은 일종의 단편적인 텍스트인 사해 두루마리 중 하나이지만, 분명히 그것이 구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미가엘이 성육신하여 그의 백성을 이끌고 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특히 다니엘서, 다니엘 7장, 다니엘 12장. 다니엘서는 그 때에 네 백성을 보호하는 큰 군왕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읽었다. 민족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네 백성 곧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미가엘이 와서 구출할 것입니다. 그는 화신할 것인가, 아니면 천사처럼 싸울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천사의 메시아, 미가엘의 화신이라는 개념이 역사 전반에 걸쳐 이단으로 계속해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예수가 대천사 미가엘의 화신이었다고 믿는 매우 유명한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약간의 조사를 해보세요.

인자, 다니엘 7장.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 속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그는 네 번째 왕국이 일어나서 끔찍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왕국은 위대하고 끔찍하며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짓밟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성 모독과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말하는 큰 입을 가진 이 작은 입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내 앞에 보이더라. 그러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 그가 처음 본 것은 동물처럼 보이는 네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처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시더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권이니라.

그리고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않을 왕국입니다.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사람의 아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는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그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이전 환상에서 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왕국의 일종의 아바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은 분명히 인자의 출현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모든 국가를 분쇄하는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우스 같은 사람들이 지성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폼페이우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비전이 바로 그 시대에 실현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네 번째 큰 짐승이 거기 있다면 인자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이 넷째 세계 제국이 나타난 후에 옵니다. 제국은 확실히 로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와 동일시한다는 개념은 아마도 기원전 100년경인 에녹 첫째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녹 첫째서는 복합 텍스트이다. 다섯 권의 서로 다른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실제로 다섯 권의 책인 오경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책에는 일종의 다른 종류의 메시아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동시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에녹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 이미지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해석되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넷째 에스라입니다. 넷째 에스라는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후기 본문으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에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 4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있는 인자의 환상에 기초하여 해석되는 메시아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 4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확실히 초자연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적들에게 불을 붙여넣어 적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기나 무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으로 군대를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등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이미지는 여기 이 구절에서 새로운 종류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에녹 첫째서에서는 에녹 자신이 이 사람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에녹의 이야기와 그가 어떻게 유대교에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세 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유대 전통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말하며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구적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몇 번만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녹은 천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에서 이러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에녹서에서 에녹이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 자신도 인자로 환생할 것이며, 말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로 환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칭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소 까다로운 것입니다. 이제 한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칭호라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사용된 주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이론의 한 가지 문제점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이전의 어떤 문헌에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에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다윗에게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역할과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종종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에는 시편 2편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오늘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것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름은 일부 사해 두루마리에서 다윗 가문의 메시아의 속성으로 나타나지만 신약성서처럼 제목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종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나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들리지만 그것은 일종의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예수에 대한 이 칭호를 어디서 생각해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왔나요? 발표된 것 중 하나는 사해 두루마리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는 텍스트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축하 행사가 있었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의 못, 또는 우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축하하는 매우 저명한 기독교 및 사해 두루마리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다지 빠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통해 해당 텍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텍스트가 아마도 잘못 읽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인물은 아마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는 모든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 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교만한 작은 뿔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적용하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그의 주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후의 로마 황제들도 신의 아들로 불린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나는 가장 초기의 증거가 성경, 즉 신약성서 자체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에스라 4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는 내 아들 메시아(My Son the Messiah)가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건 일종의 내 아들, 의사와 비슷해요.

아니요, 내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특정 본문에서 메시아를 그의 아들로 끊임없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약화의 방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장.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수입니다.

따라서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영감을 준 것은 유대교 본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행했던 일이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론은 수십 년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책에 대한 책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매력과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천재성은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를 결합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언젠가 재림하실 때 열국을 정복하실 다윗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제사장이며,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더욱이 예수는 그 사람의 아들이시다. 물론 이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이제, 종종 예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실 때, 그분은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그에게 "야, 어디 묵어?"라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나요? 그것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다. 이 사람의 아들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일종의 공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 왕국을 없애고 영원하고 영원한 왕국을 소유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다른 많은 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성취를 봅니다.

예수와 그분이 제시된 방식은 확실히 당시의 메시아 사상과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절당하셨는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주장, 자신의 초자연적 기원에 대한 주장, 메시아라는 주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절당하셨는가? 그것들은 그의 신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왕국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 왕국,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로마인들을 상대로 벌이게 될 이 영광스러운 캠페인을 통해 그들의 생애 동안 그 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불행하게도, 예수께서는 물론 다른 목표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 이 세상의 어떤 왕국도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국, 끝이 없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를 가르쳤던 안토니 토마시노 박사(Dr. Anthony Tomasino)입니다. 14회기 유대 메시아니즘입니다.